

# 대학생의 색기호와 색명 인지도에 관한 기초적 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the Color Preference and  
the Recognition of Color Names among College Students)

李正玉\*\* · 陳玄善\*\*\*  
(Jung-Ok Lee · Hyun-Sun Jin)

##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색기호를 알아 보고 색명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게 되었다.

첫째,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색은 파랑>보라>흰색·녹색 순이며 혐오하는 색은 무채색>황토색>빨강의 순이다.

둘째, 가구색으로는 갈색계통을 선호하고 빨강을 혐오하며, 의복색으로는 흰색을 선호하고 빨강을 혐오한다.

셋째, 계절의 이미지색으로 봄은 노랑, 여름은 파랑, 가을은 갈색, 겨울은 흰색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이미지색은 푸른색이 가장 많았다.

넷째, 색명에 대한 인지도는 검정색>회색>빨강>녹색 순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남색>다홍>연지>감청이 인지도가 낮았다. 또한 무채색계열>중성색계열>난색계열>한색계열의 순으로 색명 인지도가 높음이 밝혀졌다.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lor preference and the recognition of color names among college students.

The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

1) The most favorite colors included blue, purple, white and green in that order ; and the least favorite colors included achromatic colors, ocher and red in that order.

2) Brown was the favorite color in furniture while red was the disliked color ; In colthing, white was preferred while red was disliked ; Red was appropriate for accent colors, and bright colors were for

\*이 논문은 1996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正會員 : 嶺南大 衣類學科 教授.

接受日字 : 1996年 11月 20日

\*\*\*正會員 : 嶺南大 家政學科 博士課程.

product packages.

3) In regards with seasonal image, yellow, blue, brown and white were associated with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respectively ; Blue represented self-image most.

4) Black, grey, red and green in that order showed the highest recognitions in color names while indigo, crimson, deep carmine and navy blue showed the lowest ; Color name recognitions showed the order of achromatic, neutral, warm and cool colors.

## 1. 서론

색채기호 연구는 주로 감각을 정량적 수법으로 취급하여 성, 연령, 인종의 기호경향과 차이를 보거나 다변량 해석에 의해 감정요인에의 접근을 시도하여 의·식·주의 생활환경에 의해 감정요인에 관계가 있는 기호감정으로 발전시켜 실용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자사의 상품판매전략을 위하여 소비자의 색기호를 조사하고 있으며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주로 성격과 관련지어 연구되고 있다.

잭시(E. Jaensch)는 빨강에서 노랑에 이르는 계통의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향적이며 녹색에서 파랑에 이르는 계통의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향적이라고 말하며, 브런(F. Birren)은 빨강은 현실적인 향락주의자가 좋아하며 파랑은 정신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이 좋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sup>. 또한 색채선호는 민족·지역적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정치·경제·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지며 시대에 따라서도 변화하며<sup>2)</sup>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들은 색채기호에 대한 시장의 계층분류를 결정하는 것은 연령, 성별, 직업, 지역 등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육구의 문제라고 말하며 애정, 소속, 인가, 독립, 성취의 5가지 인격육구(personal needs)를 파악하는 것이 색채기호를 결정하는 원인파악과 연결된다고 하였다<sup>3)</sup>. 즉, 색의 기호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며 같은 계열의 색이라도 그 농도나 상태의 변화에 의해 기호가 달라진다. 그러나 집단별 특성이 같은 경우에는 유사성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sup>4)</sup>.

이와 같이 색기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많으므로 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는 어떤 색 그 자체를 실험하는 것 보다 특정한 대상에의 관련을 알아 보는 것이 좋다<sup>5)</sup>. 그러나 색기호를 알고자 하는 대상이 제한적이지 않는 경우나 전반적인 색기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파악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생활은 색채에 둘러 쌓여 있어 색을 대하는 기회가 많며 그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색에 대한 표시법이 달라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색명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색채계획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일 또한 많다. 색의 표시법은 맨셀기호 등을 사용하거나 XYZ값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으나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색감과 직결되어 있고 숫자나 기호로 된 색표시보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표시법은 색명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들이 식별할 수 있는 색의 수는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에 따라 엄청나게 많다. 이 많은 색에 모두 이름을 붙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확실한 구별이 인정되고 널리 사용되는 색에만 색이름을 붙이고 있다. 색명에 의한 색의 구분은 인종, 지역, 풍습, 개인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대체로 일반색명과 관용색명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색명은 색이름을 계통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부르는 색이름으로 계통색명이라고도 하는데 빨강, 노랑 등의 색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관용색명은 진달래색, 개나리색 등 자연의 사물색 등을 사용하여 옛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색이름으로 고유색명이라고도 한다. 한국공업규격으로 광공업제품의 물체색 이름에 대한 규정을 KS A 001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도 색이름을 계통색이름과 관용색이름

으로 구분하고 있다.

색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색에 대한 정보의 전달기능에 기초한 일반색명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보통으로 관련 연구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색채학 연구에서도 색명에 관한 연구는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색명에 관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Berlin과 Kay(1969)에 의한 연구<sup>8)</sup>이다. 이들은 색명이 가장 간단한 경우에는 흑과 백(즉, 명암)에 해당하는 언어로 표시되고 다음으로 빨강이 오며 그 다음으로 녹색 또는 노랑에 해당하는 언어가 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색명이 5개인 경우에는 흑, 백, 적, 녹, 황이며 이때 녹에는 청의 색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grue”라고 하였다. 색명이 6개가 되면 “grue”는 청과 녹으로 나뉘어진다. 다음으로 갈색, 핑크, 자주, 주황, 회색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Berlin과 Kay의 이 연구 결과는 Hering(1974)의 반대색설에 나타나는 흑-백, 적-녹, 황-청과 일치한다<sup>9)</sup>. 飯島와 Zollinger(1980)에 의한 연구<sup>10)</sup>에서도 일본인 학생은 적, 청, 백, 황, 흑, 녹의 6개 색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어 Berlin과 Kay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색명을 아는 것이 색을 식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색을 식별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E. Sapir(1944)<sup>11)</sup>와 B. Whorf(1956)<sup>12)</sup>는 사람들이 색을 알고 기억하는 일은 그들이 사용하는 색이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Brown과 Lenneberg의 연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색을 같은 이름으로 불러주면 기억하거나 식별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지만 어떤 색채를 무어라 불러야 좋을지 모를 때는 기억력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색이름에 의한 색의 구분은 인종, 지역, 풍습, 개인에 따라 다르며 색이름은 색채 감각의 발달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KS A 0011규정조차 일본 공업규격 JIS Z 8102에 준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색이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색기호를 알아 보고 색명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색채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2. 연구방법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한 기호색에 대한 조사와 색표를 이용한 색명에 대한 인지도 실험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피험자의 주관적 생각을 서술하게 하는 주관식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피험자의 일반적 사항, 기호색(일반적 기호색과 가구, 의복의 기호색), 이미지색(사계절과 자신의 이미지색)을 묻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은 가로 19[cm], 세로 27[cm] 크기의 백지에 한국공업규격에 준한 기준색 20색상(빨강, 녹색, 남색, 자주, 갈색, 풀색, 감청, 붉은 보라, 다홍, 연두, 보라, 파랑, 바다색, 남보라, 연지, 노랑연두, 노랑, 청록, 주황, 초록)과 무채색 3종류(흰색, 회색, 검은색)를 붙인 색표 23장<sup>13)</sup>을 만들어 이를 랜덤하게 피험자에게 제시한다. 색표는 각각 약 1분정도 제시하며 자연적인 상태를 연출하기 위하여 채광이 들어오고 형광등이 켜져 있는 실내에서 실시하였다. 이때 피험자는 제시된 색상을 보고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색명을 자유롭게 기술하며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빨강과 회색은 각각 제시순서 전반과 후반부에 반복 제시하였다. 이것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 피험자의 신뢰도는  $f=0.72$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최종 분석에 모든 피험자의 데이터를 모두 채택하였으며 자료분석시에는 뒤에 서술된 색명만을 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Y대의 남녀대학생 각각 99명, 175명, 총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기간은 1996년 5월이며 전체 실험시간은 1시간 미만이다.

## 3. 결과 및 고찰

### 3.1 피험자의 일반적 속성

피험자의 일반적 속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일반적 속성

Table 1. General attribute of subjects

항 목		
성별 (%)	남성	36.1
	여성	63.9
평균 (세)	연령	22.4
평균 (명)	가족수	5.15
혈액형 (%)	A	35.8
	B	26.5
	AB	9.1
	O	28.6
주관적 성격 (%)	내향적	36.8
	중간	18.3
	외향적	44.9
출생지 (%)	도시	49.9
	시골	50.1
성장지 (%)	도시	66.0
	시골	34.0

### 3.2 기호색에 대한 분석

기호색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호색과 색채가 전체상품의 평가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되는 가구 및 의복의 기호색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대학생이 색채로써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색과 혐오하는 색은 표 2와 같다.

표 2. 선호색과 혐오색

Table 2. Color Preference (%)

구분/순위	1	2	3	4	5	기타
선호색	파랑 (24.5)	보라 (14.2)	흰색(13.2) 녹색(13.2)	노랑 (4.2)	빨강 (3.6)	(27.1)
혐오색	무채색 (27.9)	황토색 (17.9)	빨강 (12.2)	노랑 (7.0)	연두 (5.4)	(29.6)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색채로써 선호하는 색은 파랑>보라>흰색·녹색의 순이며 혐오하는 색은 무채색>황토색>빨강의 순이다. 빨강, 노랑은 선호색임과 동시에 혐오색으로 나타나 개인차가 크게 남을 알 수 있다. 색채기호는 연령, 성, 지역은 물론이고 체형이나 정치, 경제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남자는 파랑·초록계통을, 여자는 빨강·보라계통을 선호하며 구체적인 상품색의 선호에도 이 기본 선호도가 작용한다. 그리고 유아기·아동기에는 빨강을 좋

아하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파랑, 녹색 등으로 변해간다<sup>5)</sup>. 본 연구의 피험자는 청년기로 파랑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柳瀨 팀의 연구(1982)에 따르면 나라에 따른 색기호가 성이나 연령차보다도 크게 난다<sup>12)</sup>고 한다. 따라서 각 나라별 색기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대외무역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가구색으로 선호하고 혐오하는 색은 표 3과 같다.

표 3. 가구의 선호색과 혐오색

Table 3. Furniture Color Preference (%)

구분/순위	1	2	3	4	기타
선호색	갈색계통 (47.8)	검정색 (18.8)	흰색 (17.7)	아리보리 (9.6)	(7.1)
혐오색	빨강 (32.5)	검정색 (13.0)	갈색계통 (8.8)	없다 (5.2)	(40.5)

갈색계통에는 나무의 결이 그대로 드러난 천연 나무색과 고동색, 황토색, 적갈색, 흑갈색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선호하는 가구색으로는 갈색계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검정색, 흰색의 무채색이 그 다음이다. 아리보리는 갈색계통의 옅은 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구색으로 선호하는 색상은 그리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로는 하늘색, 회색, 핑크색 등이 있었다. 혐오하는 가구색으로는 빨강을 가장 혐오하며 가구의 선호색으로 생각하는 갈색계통은 너무 식상하기 때문인지 혐오색에도 포함되어 있다. 기타로는 자주색, 노랑색, 흰색 등이 있었다. 그러나 고을한 외(1994)에 따르면 부엌가구의 색으로 주부들은 흰색과 검정색을 가장 선호하며 원색조 색채인 빨강, 파랑, 녹색 또한 많이 요구한다<sup>2)</sup>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불일치하고 있다.

의복색으로 선호하고 혐오하는 색은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의복의 색으로 선호하는 색상은 흰색, 검정색 등 무채색과 파랑, 빨강 등 원색이 차지하고 있다. 기타로는 나무색, 회색, 보라색 등이 있었다. 혐오하는 의복의 색

표 4. 의복의 선호색과 혐오색

Table 4. Costume Color Preference (%)

구분/순위	1	2	3	4	기타
선호색	흰색 (26.6)	파랑 (14.8)	검정색 (14.8)	빨강 (11.8)	(28.3)
혐오색	빨강 (22.1)	녹색 (10.4)	회색 (8.2)	노랑 (9.6)	(49.7)

상으로는 빨강, 녹색, 노랑 등 원색과 무채색 중 중간적 색상인 회색이 차지하고 있다. 기타로는 고동색, 보라색 등이 있었다. 안 애삼 팀의 연구<sup>13)</sup>에 따르면 의복색으로 한국여성은 검정색과 흰색을, 일본여성은 Nave Blue나 흰색을 선호하며, 한국여성은 빨강을, 일본여성은 진분홍과 분홍을 대단히 싫어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한편, 의복색으로 선호하는 색과 실제로 즐겨 입는 의복색은 64.2[%]가 일치한다고 하고 있어 선호색을 대체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일치하는 이유로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얼굴색과의 조화때문에, 디자인 위주로 의복을 선택하기 때문에 등을 들고 있다.

### 3.3 이미지색에 대한 분석

이미지색에 대해서는 사계절의 이미지색과 자신의 이미지색에 대해 살펴 보았다. 사계절의 이미지색을 두가지씩 기입하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사계절의 이미지색

Table 5. Image on the Season Color

구분	이미지색 (%)
봄	노랑(35.0), 녹색(18.4), 분홍(7.6), 연두(7.6), 기타(29.9)
여름	파랑(29.8), 녹색(15.6), 빨강(8.3), 흰색(8.7), 기타(37.6)
가을	갈색(32.5), 빨강(5.9), 파랑(3.0), 검정색(1.8), 기타(56.8)
겨울	흰색(31.5), 검정색(18.8), 회색(14.5), 남색(2.1), 기타(33.1)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봄은 노랑, 여름에는 파랑, 가을에는 갈색, 겨울은 흰색을 이미지색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학성(1991)은 계절색으로

봄은 녹색을 띤 황색, lemon yellow, 연한 자색, 꽃잎색을, 여름은 짙은 녹색, 감청, cobalt green 이며 가을은 cobalt blue, 황색, chrome yellow, 단풍잎색, 포도주색, 겨울은 은백색, 회색이라고 하였다<sup>3)</sup>. 이를 보면 계절별로 최상위를 나타내는 이미지 색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그 이하의 순위에서는 본 연구결과가 보다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이미지색은 personal color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통일성과 환경에의 적응에 의해 표출되는 개인의 색채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다. personal color는 그 사람의 특성을 표현하는 인격적 색채로서 사람들의 생활색채환경을 예측하여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personal color도 색기호와 마찬가지로 연령증가에 따라 변화하면서 형성해 간다. 자신의 이미지를 한가지의 색으로 표현하게 한 결과, 푸른색(30.6%), 흰색(16.6%), 노랑(9.5%), 검정색(6.6%), 기타(36.7%)로 나타났다. 수井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인의 경우, 청년 전기·중기의 personal color는 흰색, 옅은 노랑, 옅은 파랑, 밝은 빨강, 검정색 등이며 검정색과 회색은 청년 중기경부터 나타난다<sup>14)</sup>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 3.4 색명에 대한 인지도 분석

색명에 대한 인지도를 한국공업규격의 색명으로 표현한 것만을 정답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면 전체 색인지도의 평균은 50.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정답률이 높은 것은 검정색>회색>빨강>녹색>보라>흰색의 순이며, 정답률이 낮은 것은 남색>다홍>연지>감청>갈색>풀색의 순이다. 여기에는 전술한 Berlin과 Kay의 연구, 飯島와 Zolling의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이라고 보고 있는 6개 색명중 노랑과 파랑이 포함되지 않고 회색과 보라가 포함되어 있다. 노랑은 7번째로 색명인지도가 높으며 색상환에서 인접해 있는 갈색이나 노랑연두보다는 월등하게 인지도가 높으므로 비록 6위안에는 들지 못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색명인지도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랑은 그 자체의 인지도도 그리 높지 않으며 인접해 있는 색의 인지도와도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은 선행연구들과 색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또한 Berlin팀이 주장한 “grue”의 존재가 본 연구결과에서도 보여진다. 즉, 녹색의 색명인 지도는 파랑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녹색의 오답속에는 파랑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파랑의 오답

속에는 녹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파랑보다 녹색의 색명이 우선적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색명에 대한 인지도를 색의 온도감에 따라 고찰해 보면, 5R~10Y까지의 난색계열의 평균 인지도는 46.1(%), 5GY~10G, 5P~10RP의 중성계열은 50.9(%), 5BG~10PB까지의 한색계열은 33.0(%), N의 무채색계열은 93.8

표 6. 색명에 대한 인지도  
Table 6. Recognition of Color Names

색 명	정답률[%]	오 답 예 [%]
빨강(5R)	94.0	소방차색(1.2), 다홍(1.2), 주황(0.7), 주홍(0.6), 진분홍(0.5), 기타*(1.7)
다홍(10R)	16.3	주황(59.7), 주홍(11.5), 오렌지색(5.5), 귤색(3.4), 기타(3.6)
주황(5YR)	33.7	귤색(32.0), 오렌지색(22.9), 진노랑(2.2), 주홍(1.9), 무응답(7.3)
귤색(10YR)	18.5	노랑(45.7), 진노랑(18.6), 개나리색(12.6), 오렌지색(1.0), 기타(1.3), 무응답(2.3)
노랑(5Y)	74.7	개나리색(14.8), 진노랑(4.5), 귤색(1.4), 병아리색(1.1), 황토색(0.6), 레몬색(0.6), 기타(0.5), 무응답(1.8)
노랑연두(10Y)	39.3	노랑(16.4), 연노랑(9.0), 개나리색(4.2), 밝은노랑(4.1), 레몬색(3.0), 형광연두(2.1), 기타(10.0), 무응답(11.9)
연두(5GY)	73.9	풀색(8.3), 노랑연두(4.7), 연녹색(3.1), 올리브 그린(1.2), 연초록(1.1), 형광연두(0.5), 기타(7.2)
풀색(10GY)	18.7	연두(61.8), 연녹(7.2), 초록(4.0), 녹색(2.8), 진연두(1.7), 새싹색(1.2), 기타(2.6)
녹색(5G)	93.9	연두(2.9), 풀색(1.8), 파랑(0.8), 새마을운동색(0.6)
초록(10G)	42.6	녹색(43.4), 풀색(4.1), 청록(4.1), 진녹색(2.9), 기타(1.1), 무응답(1.8)
청록(5BG)	22.7	녹색(27.3), 초록(22.8), 진녹색(2.4), 나뭇잎색(1.3), 풀색(1.2), 기타(2.3), 무응답(20.0)
바다색(10BG)	40.5	청록(26.2), 파랑(9.3), 녹색(3.7), 군청(3.7), 초록(3.0), 짙은 녹색(1.8), 기타(2.9), 무응답(8.9)
파랑(5B)	50.1	바다색(14.0), 청록(11.3), 남색(4.6), 기타(3.0), 무응답(17.1)
감청(10B)	18.3	파랑(30.5), 바다색(14.2), 진파랑(5.4), 남색(5.2), 군청(5.0), 적파랑(1.2), 기타(20.2)
남색(5PB)	10.8	파랑(76.3), 청색(6.0), 바다색(3.7), 청록(1.2), 남청(0.5), 감청(0.5), 기타(1.0)
남보라(10PB)	55.8	군청색(12.8), 파랑(8.3), 보라(7.1), 곤색(1.8), 청색(1.8), 감청(0.6), 기타(4.2), 무응답(7.6)
보라(5P)	89.1	자주(2.6), 남보라(2.0), 남자주(0.6), 붉은색(0.6), 청보라(0.5), 남색(0.5), 무응답(4.1)
붉은보라(10P)	31.6	보라(32.7), 연보라(16.7), 자주(7.7), 진보라(4.2), 주황(0.6), 연지(0.6), 기타(5.9)
자주(5RP)	40.5	보라(31.1), 연보라(12.1), 연지(3.9), 붉은보라(3.9), 기타(8.5)
연지(10RP)	17.1	자주(37.4), 꽃분홍(10.3), 연자주(3.6), 연보라(3.6), 빨강(2.3), 붉은보라(2.3), 기타(9.0), 무응답(14.5)
흰색(N9.5)	87.6	연회색(5.9), 밝은회색(1.8), 미색(1.8), 베이지색(1.2), 회색(0.5), 기타(1.2)
회색(N5.5)	96.0	시멘트색(1.2), 공장색(0.6), 쥐색(0.6), 재색(0.6), 아스팔트색(0.5), 비둘기색(0.5)
검정색(N1.5)	97.7	회색(1.8), 기타(0.5)
합 계	50.6	

\* 기타는 0.5%미만의 응답의 합을 나타냄.

[%]이다. 이를 보면 무채색의 색명인지도가 높고 다음으로 중성계열-난색계열-한색계열의 순임을 알 수 있다. 무채색계열의 색명인지도가 높은 것은 색의 명도단계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흔히 사용되는 색명이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무채색 중 흰색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이는 오프 화이트(off white)라는 흰색에 가까운 옅은 색과 흰색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중성계열의 색명인지도가 높은 것은 5R-5Y-5G-5B-5P의 5개 기준색 중 파랑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5G, 5P의 두 종류가 중성계열에 속해 있기 때문으로 이 두가지 색 이외의 중성계열 색의 색명인지도는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색계통이 난색계통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난색에 대한 기억도가 높다<sup>1)</sup>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香川팀의 연구(1990)에 따르면 관용색명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세대간의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sup>2)</sup>. 그러므로 색명인지에 대한 연령차에 따른 고찰이 뒤따라야 하겠다.

#### 4.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색기호를 개략적으로 알아 보고 색명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색채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을 두고 27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은 파랑이며 가장 혐오하는 색은 무채색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가구색으로는 갈색계통을 선호하고 빨강을 혐오하며, 의복색으로는 흰색을 선호하고 빨강을 혐오한다. 계절의 이미지색으로 봄은 노랑, 여름은 파랑, 가을은 갈색, 겨울은 흰색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이미지색은 푸른색이 가장 많았다. 한편, 색명에 대한 인지도는 검정색이 가장 인지도가 높은 반면 남색이 가장 낮았으며, 무채색계열의 인지도가 높고 한색계열의 인지도가 낮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본 대학생의 색 선호는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없으나 색채로써 선호하는 색과 구체적인 사물(여기에서는 가구와 의복)의 색으로 선호하는 색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자 중·고등학생 576명을 대상으로 한 백숙희 팀(1994)의 색채기호와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16)에 따르면 색상에 따른 선호색 및 혐오색과 성격특성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난·한색계열에 따른 선호색은 동조성과 남향성에, 혐오색은 안정성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색 선호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연령별 특성이나 경시적 변화, 개인의 색경험, 관심도 등에 대한 고찰이 뒤따라야 하겠다.

한편, 색명 인지도에 있어서는 색상별로 인지도가 아주 높은 것과 아주 낮은 것이 있으며 특히 아주 기본적인 색상(예를 들어 5B와 같은)의 색명 인지도가 아주 낮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색명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색명을 통한 색상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색명과 색상을 일치시켜 지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색채교육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색명에 의한 색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색명과 색표를 잘 연관시켜 기억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색채 관련 과목인 경우 색명만으로 지식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색표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확인을 반드시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그리고 색명인지에 대한 세대간 비교, 남녀간 비교, 문화간 비교 등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西田虎一, 色彩心理學, 造形社, 1986.
- 2) 고을한외 1명, 디자인을 위한 색채계획, 미진사, 1994.
- 3) 김학성, 디자인을 위한 색채, 조형사, 1991.
- 4) 안옥희외 4명, 생활색채디자인, 형설출판사, 1997.
- 5)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미진사, 1991.
- 6) B. Berlin and P. Kay,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1969.
- 7) E. Hering, Grundriss einer Theorie des Farbensinnes, Sitz. ber. ost. Akad. Wiss., math.-naturwiss. kl., Abt.

Ⅲ, 70, 169, 1974.

- 8) 飯島俊郎, H. Zollinger, 日本人の色名表現—その文化的背景に関する示唆, 日本色彩學會誌, 4(4), 2~7, 1980.
- 9) E. Sapir, Grading—a study in Semantics. in ; Philosophy of science 11:93—116, 1944.
- 10) B. Whorf, Science and Linguistics, in ; J.B.Carroll ed.,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s of Benjammin Lee Whorf, Combridgge, Mass.:MIT Press, 1956.
- 11) KBS 한국색채연구소, 한국표준색표집, KBS문화사업단, 1991.
- 12) 柳瀬徹夫 外 2名, 日本での色彩嗜好, 日本色彩學會誌, 6(2), 34~36, 1982.
- 13) 安愛三 外 2名, 韓國女性と日本女性の衣服嗜好色に関する比較研究, 日本色彩學會誌, 13(2), 6~14, 1989.
- 14) 今井 生, 色彩嗜好とパーソナル・カラーの分析, 日本色彩學會誌, 3(4), 96~105, 1979.
- 15) 香川辛子 外 1名, 慣用色名認識(2報), 日本色彩學會誌, 14(3), 162~171, 1990.
- 16) 백숙희외 2명, 색채기호도와 성격특성 및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연구, 충북가정학회지, 3(1), 71~80, 1994.

◇ 著者紹介 ◇



이 정 옥(李正玉)

1934年 12月 15日生. 1958年 慶北大 家庭教育學科 卒. 1973年 嶺南大 大學院 家政學科(碩士). 1984年 慶北大 大學院 家政學科(理學博士). 現在 嶺南大 衣類學科 教授.



진 현 선(陳玄善)

1969年 5月 23日生. 1992年 경일대 의상디자인학과 卒. 1994년 嶺南大 大學院 衣類學科(碩士). 現在 嶺南大 大學院 家政學科 博士課程, 경일대, 밀양산업대 강사.